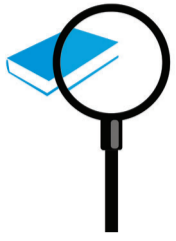


명작은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명작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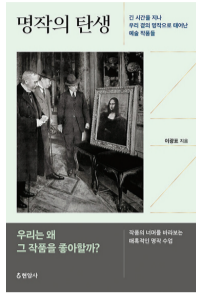
이광표 지음

'모나리자',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세한도',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백자 달항아리'...

얼거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대와 배경, 장르는 다르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예술작품이다. 한마디로 '명작'이다. 명작의 사전적 의미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훌륭한 작품"을 일컫는다.

명작은 어떻게 탄생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명작을 좋아할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컬렉션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명작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분명한 것은 명작에는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스캔들'이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모나리자 집단'이라는 말이 있다.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해 '모나리자'만을 감상하고 전시실을 떠나는 이들을 말한다. 방문객 25% 가량이 '모나리자' 인종샷을 남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나리자'를 패러디한다.



수염을 긴 모나리자, 담배를 피우는 모나리자 등등.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모나리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밀로의 비너스'와의 경쟁이 벌어졌을 때 당대 유명 문인들이 '모나리자'를 선택했고, 1911년 발생한 도난 사건 등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신비한 모나리자의 고품격 미소, 도난 이후에 전개된 대중화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를 했다.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저자 이광표 서원대 교수의 '명작의 탄생'은 예술 속 빛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일간지 문화유산 담당기자로 일했으며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손 안의 박물관' 등을 펴낸 바 있다.

책은 예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해 시대의 금기, 역사 속 흥미로운 명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앞서 거론했던 작품 외에도 정약옹의 글씨, 신라 토우, 광화문 이충무공 동상, 신라 얼굴무늬 수막새 등도 만날 수 있다.

국새와 어보는 치욕의 역사를 품고 명작이 된 경우다. 지난 2019년 국내로 돌아온 '대군주'는 조선 말(1882년) 격변기에 제작됐다. 재미교포가 1990년대 경매에서 구입해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대군주보가 제작되던 시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 새로운 국가 상징물이 필요했던 때다. 당시 국새 6점이 제작됐는데 여기에는 고종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

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돌아온 대군주보에는 'W. B. Tom'이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미국인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치욕의 상처'에 다름 아니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 소장품이다. 베르메르의 델프트라는 작은 운하도시에서 거주하며 그림을 그렸다. 안타깝게도 그는 43세의 나이에 부인과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남겨두고 죽는다. 지금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지만 당시에 그는 존재감이 없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그를 연구하면서 그림들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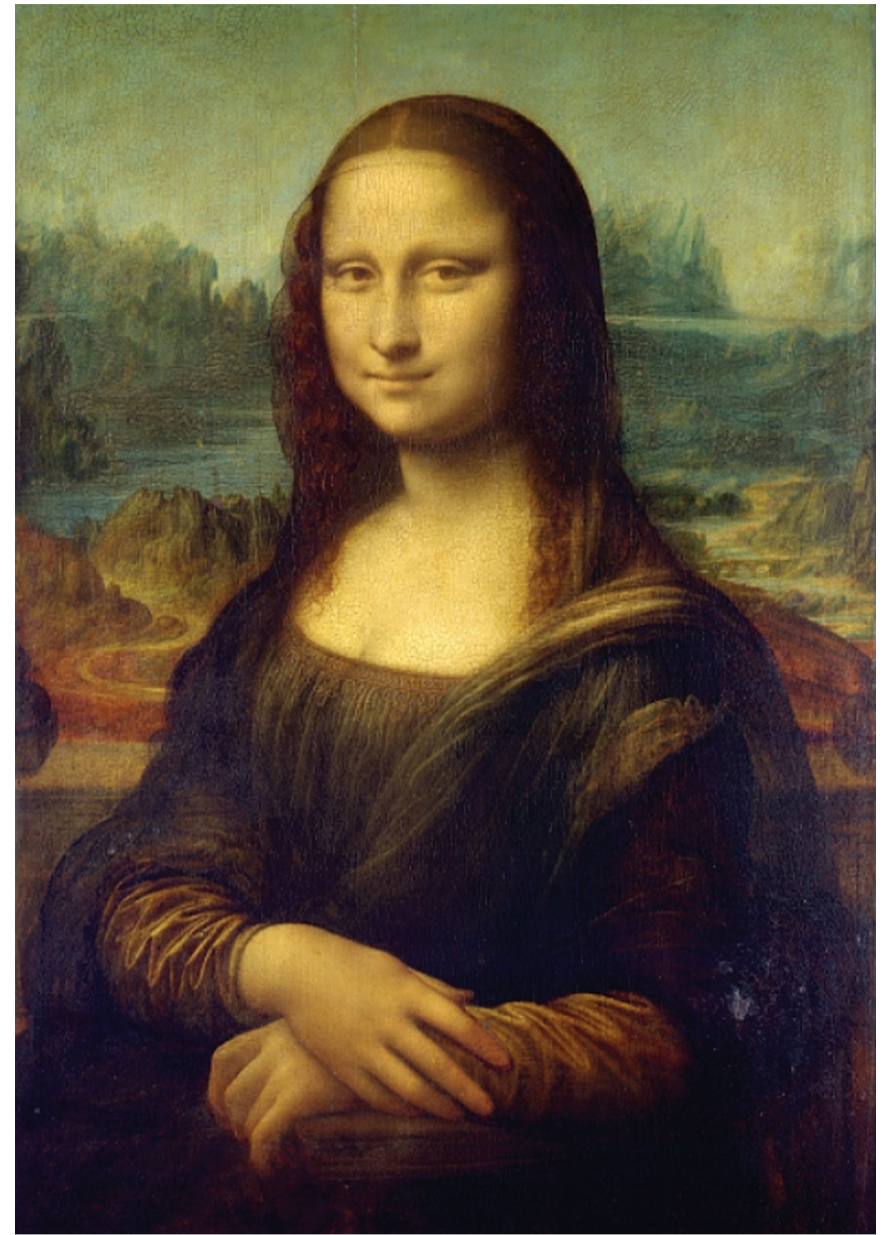
결정적으로 메이헤른이라는 화상 겸 화가가 그린 가짜 그림은 베르메르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1932년부터 메이헤른은 베르메르 아이터른은 물론 비평가 평가 등을 참고하며 그림을 그렸다. '엠마오의 그리스도와 제자들' 같은 동일한 제목의 작품도 선보였다. 이후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이 사들인 작품 11점도 가짜로 확인됐는데 "나치를 제대로 조롱한 셈"이 됐다. 이런저런 소동을 거치며 베르메르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저자는 말한다. 명작 스토리 유형은 다양하게 일테면 숨겨진 매력과 가치, 사건과 사고, 논란과 정치적 편견, 작품 수송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스토리를 단순한 가십이나 스캔들로 치부해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가십과 스캔들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작품의 중요한 미학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암사·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나리자' (1503~1506, 루브르박물관)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 김은영 옮김

올 봄은 유난히 흐린 날이 많고 비도 많이 왔다. 예년과 다른 날씨의 환경의 문제, 지구 생태계의 문제 등을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특히 지난 4월에 벌써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곳이 있을 만큼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이상 기온, 기후 온난화 등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다.



레이첼 카슨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명이다.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시절 문학을 공부하다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이후 존스홉킨스대에서 해양생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자연사 등을 가르친다. 또한 해양 생물학자로 연구와 업무를 병행하다 1952년 이후 글쓰기로 방향을 전환한다.

올해는 레이첼 카슨의 사후 60주기가 되는 해다. 그녀는 환경의 문제를 절실히 제기하고 활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생물학자였다. 60주기를 기념해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그녀의 저서 '침묵의 봄'이 다시 출판됐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제2의 레이첼 카슨'으로 명명되는 샌드라 스타인그래버의 서문을 비롯해 '침묵의 봄' 이후 환경 관련 글, 연보 등이 추가됐다.

사실 처음 레이첼 카슨이 책을 발간했을 당시, 그녀에 대한 공격은 집요했다. 농약 제조업체들은 살충제가 미국의 농업에 별다른 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저자가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1958년 허킨스라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비행기 방제를 위해 숲속에 DDT를 살포했는데 그로 인해 새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책은 환경을 고리로 사회운동을 견인했던 레이첼 카슨의 활동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코리브르·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BS 창사특집 고래와 나

홍정아·이근별·이은솔 외 지음

고래는, 섭의가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통의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처럼 무작정 쫓아다니거나 죽치고 앉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래들이 사는 곳은 광활한 바다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래 다큐멘터리? 그것도 1년 만에? 이 인원으로?," "고래로 4부작씩이나? 창사 특집으로 다큐? 재미.. 있을까?"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던 일을 성사시킨 이들이 있다. 홍정아 작가와 이근별·이은솔 피디, 그리고 SBS 창사특집 제작진이다. 지난해 11월 SBS 창사특집으로 방영됐던 '고래와 나'는 주위의 우려를 보란 듯이 깨트리고 성공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SBS창사특집 고래와 나'에는 다큐에서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자세히, 깊게 실려있다. 바닷속 고래를 만나기 위해 펼쳤던 여정 속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부침 3일 차, 내부 장기를 탐색하던 연구자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위와 대장의 연결지점에서 만져진 동그랗고 딱딱한 모양의 물체. 플라스틱 컵 뚜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카로운 조각의 또 다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본문 중에서)

책 '고래와 나'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지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와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좋아하게 만들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국내 최초 8K 수중촬영으로 담아낸 '고래와 나 포토북'도 별도 출간됐다. 수컷들이 암컷 고래를 두고 구애의 질주를 하는 히트 런, 이미 항고래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 등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아트레이크·1만9000원, 포토북 3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내 몸 안의 거울, DNA 이야기

이영일 지음

21세기를 장악할 '블루칩 산업'으로 생명공학이 지목된 지 오래다. 빌 게이츠는 "생명공학이아말로 21세기판 IT 산업"이라 언급했으며 실제로 유전체 해독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생명공학 기술의 '신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생명공학 기술이 쌓아온 금자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생로병사부터 인류의 존망을 좌우하는 유전자 'DNA'에 흥미를 느끼는 책이 나왔다.

전북대 농과대학에서 학·석·농학박사 학위를 받고 40여 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돌연변이를 연구한 이영일이 최근 '내 몸 안의 거울, DNA 이야기'를 펴냈다.

책은 포스트 게놈 시대의 삶부터 인류를 구한 불멸의 '헬라 세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생명공학 기술을 키워드로 돌아본다. 저자의 전공 분야인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돌연변이'를 진화의 근원으로 꼽으며 '인위돌연변이' 연구의 현황을 분석한다.

저자는 100억 인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간다. 유전자 변형 기술인 GMO를 활용한 미래 세대의 먹거리로 15개 작물, 70여 개 품종을 꼽는데 옥수수, 콩과 면화, 감자, 유채, 호박과 카네이션, 파파야, 밀 등이 그것.

이들 작물은 유전자 조작이나 가공을 거쳐 인류에게 풍부한 식량이 되고 있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는 지구에 '바나나'가 종적을 감출 수도 있다는 끔찍한 발상을 제시한다. 이미 지구상에 도래한 현실적 위기인 꿀벌의 실종 등을 예로 들며, 생명공학 기술로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모색한다.

<리스크·1만8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